

# 한전 에너지밸리 600개사 유치 눈앞...“에너지혁신 중심지로”

조성 7년만에 582개사 유치...전년보다 26개사 늘어  
투자 실행 54%...3439명 일자리·1만3000명 고용효과  
한전·켄텍·지자체, 에너지신기술연구원서 비전 선포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지역 연계형 R&D 지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내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유치기업이 600개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조성 7주년을 맞아 올해 나주 혁신산단에 문을 연 나주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광주·전남을 탄소중립과 신산업 에너지혁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에너지밸리 유치 기업은 모두 582개사로, 1년 전(556개사)보다 26개사(4.7%) 늘었다. 에너지밸리는 한전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 해인 지난 2015년 3월 '1호 기업'(보성 파워텍)을 유치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빛가람혁신도시(736만㎡)와 반경 10km 안에 있는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93만㎡), 광주 도시첨단산단(48만㎡), 나주 신도일일반산단(29만㎡), 나주 혁신산단(178만㎡) 등 4개 산업단지에 펼쳐졌다. 한국전력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위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며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뿐만 아니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6곳과 인근 7개 대학,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등이 협력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유치기업은 지난 2017년 3월 200개사, 2018년 12월 360개사, 2019년 12월 430개사, 2020년 11월 501개사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달 기준 유치기업 582개사 가운데 투자를 실행해 옮긴 곳은 전체의 54% 정도인 314개사이다. 259개사가 공장을 가동 중이며,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도 16곳 있다. 용지를 매입한 기업은 39개사이다. 유치기업이 늘면서 이들이 협약한 투자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1월 2조1596억원이었던 협약금액은 2021년 11월 2조6771억원, 올해 2조7907억원 등으로 3조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실제 투자금액은 7207억9000만원으로, 협약액의 25.8%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실행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신규 1580명·이주 1859명 등 총 3439명으로 집계됐다. 유치기업들이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효과는 1만2911명에 달한다. 유치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니 에너지신산업 부문이 307개사(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144개사(25%), 전력 기자재 131개사(22%) 등 순이었다. 에너지밸리는 유치기업들의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판로지원'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인력양성' '재용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나주 혁신산단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 혜택을 보고 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나주 혁신산단 직접 생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가운데)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오른쪽 세번째), 한전KPS, 한전KDN, 전남도·나주시, 에너지밸리 입주 혁신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나주 혁신산단 내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신기술 비전'을 선포하고 광주·전남 에너지기술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약속했다. <한전 제공>

승인업체가 계약을 맺은 금액은 6년여간 6938억원(59개사)에 달한다. 계약금액은 1102억원(2019년)→1234억원(2020년)→1612억원(2021년)→831억원(2022년 월)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전이 515억원 등을 출연해 조성한 880억원 규모 '에너지밸리 투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 44개사에 총 808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8월 마무리한 투자협약기업 저금리 대출은 159개사가 1695억원을 이용했다. 에너지밸리 기업들은 이자 199억원을 지원받았다. 연구과제 협업(33건·1088억원)과 기술이전(186개사·435건), 강소특구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7개사) 등 R&D 지원을 하고 총 4347명 인력

을 양성하고 288개사에 590명 채용지원을 진행했다.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 사장과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한전KPS, 한전KDN, 광주시·전남도·나주시 관계자 등은 지난 26일 나주 혁신산단에 있는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광주·전남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이끄는 에너지 혁신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나주 혁신산단에 3만2000평(연면적 1만7181㎡) 규모로 조성된 에너지신기술연구원은 대전 전력연구원의 나주 분원으로, 지역특화형 연구개발(R&D)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에너지신기술연구원은 켄텍 등 지역 대학과 협력

해 공동 R&D를 추진하며 전남의 해상풍력·태양광 사업과 광주시의 그린수소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수소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중·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O&M), 태양광, 직류배전망(MVDC) 및 전력반도체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에너지신기술연구원이 광주·전남지역에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 혁신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제1회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수출 페스티벌 성료

계약 5건·기업 70여곳 1대1 상담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지난 26일까지 이틀동안 여수에서 광주·전남 지역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위한 '제1회 광주·전남TP 해외비즈니스센터 수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전남 TP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해외비즈니스센터 5대륙 18개국 40여명의 센터장 및 바이어, 광주·전남 수출희망기업 70여개사, 광주·전남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계약 체결식, 일대일 수출상담회, 참여기업제품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 TP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유타) 중국 3개 지회(동북, 단독, 장춘)와 수출업무 협약을 체결해 광주·전남기업의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은 광주·전남의 지역주력산업을 포함, 운송기기, 소재·부품·장

비, 바이오헬스케어, 식료품, 화장품, 농수산 관련, 에너지 분야 등의 우수제품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및 개척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주기업 3개사(현대 에프앤비, 애니체, 제이디)가 120만 달러, 전남기업 2개사(정진, 마루) 450만 달러 등 총 570만 달

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수출업무 협력을 통해 70개 지역기업들과 18개국 40여개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조빙, 3년만에 지역에서 개최하는 수출상담회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전무 승진

㈜광주신세계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이동훈(54·사진) 대표이사가 전무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로 광주신세계를 국내 두 번째 규모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키우겠다는 신세계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신세계그룹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인 이동훈 상무를 전무로 승진하는 등 정기인사를 단행

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신임 대표는 1993년 신세계에 입사한 뒤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장을 거쳐 영등포점장을 맡은 뒤로 10년 만에 처음 대대적인 개편 공사를 추진하며 영등포점을 수도권 남부상권 광역 백화점으로 키워냈다. 지난 2019년 12월 광주신세계 총괄임원에 임

명됐으며, 올해 8월 광주신세계를 '아트 갤러리 파크'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장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 시설 건축에만 9000억원을 들일 계획으로, 이는 국내 최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부산 센텀시티 투자비보다 많은 금액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의료헬스케어 AI 실증공간 개소

전일빌딩에 문 열어...전남대병원 데이터 기반

전남대학교 병원이 모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증랩(실증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27일 문 열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시는 이날 전일빌딩245에서 '인공지능 실증랩'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실증랩은 의료·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총면적은 242.48㎡(73.3평)이다. 딥러닝용 고성능 GPU 서버(2대), 백업용 스

토리저 서버(2대), 인공지능 개발공간, 서버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이 공간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하기 위한 각종 보안시스템이 구현된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의 참여기업인 디제이, 티맥스 인공지능 개발센터, 이코르, 인비즈, 대신정보통신 등은 인공지능 실증랩에 상주하며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개발, 실증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처리지능화, 대화지능화, 진단지능화, 검사지능화, 추론지능화 등 총 10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실증

랩에 제공하며,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전문 의료지식을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주 기술 개발 회의를 주최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술 수요기업은 AI유나이티드, 메가웍스, 허브브리, 디닷케어, 디투리소스, 원솔루션, 팡팡타, 한국프라임제약 등 정성진 강의학 및 의료 헬스케어 산업분야 8개사다. 인공지능 실증랩 사업의 수요기업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총 18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실증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인공지능 융합(AI+X)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37억원·시비 16억원·민간투자 13억원 등 총 66억4500만원이 투입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자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 지난 26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 '2022년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자 3명을 초청해 장학금을 줬다고 27일 밝혔다. 대학등록금 납부 행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광주은행은 총 233명을 뽑아 1등(1명) 장학금 200만원과 2등(2명) 장학금 각 100만원, 3등(30명) 문화상품권 5만원권 등을 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장학금을 증정한 이준우 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대학생 홍보대사 사업과 지역 인재 채용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순천농협·석곡농협, 산지유통 선도농협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경제지주가 개최한 '전국농협 산지유통 조직·시설·인력 혁신사례 공유 포럼'에서 순천농협과 석곡농협이 선도농협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순천농협은 영농편의제고 부문에서, 석곡농협은 생산·출하 시스템화 부문에서 우수 사례로 각각 뽑혔다. 순천농협은 고품·여성·중소 농가를 포함한 지역 400여 농민인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를 위해 소포장용 봉투를 지원하고, 순회수집을 위한 차량 2대와 전용 상자를 갖췄다. 순천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매장은 연간 3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석곡농협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체계화했다. 석곡농협 특산물 '백세미'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육묘와 수확 대행, 방제 위탁 등 재배과정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확한 벼를 농협이 직접 건조하고 즉각적으로 도정하는 등 생산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친환경 쌀 백세미는 연간 4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지역농협들의 수상을 축하하며 "농도 전남의 지역농협이 다양한 사업혁신으로 고맙고 소중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양상의, 운영석 광주국제청장 초청 간담회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석 광주지방국제청장을 초청해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운 청장은 이날 지역 상공인 3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에 설명했다. 또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운영석 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전

한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8.78(+39.22)
↑ 코스닥	695.09(+11.92)
↑ 금리(국고채 3년)	4.254(+0.046)
↓ 환율(USD)	1417.00(-9.60)